

‘체력 고갈’ 광주FC, 비상 걸렸다

아침 4차전 비셀 고베에 0-2패...10일 제주전 잔류 확정 도전
재정건전화 문제로 여름 이적 시장 ‘빈손’...내년 시즌도 ‘걱정’

투혼의 질주를 선보였던 광주FC가 ‘갈림길’에 섰다. 광주FC는 지난 5일 일본 고베의 미사키공원 경기장에서 열린 고베 비셀과의 2024-2025 아시아 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리그 스테이지 4차전 원정 경기에서 0-2패를 기록했다.

첫 ‘아시아무대’에서 3연승을 기록하면서 눈길을 끌었던 광주는 이날 경기에서는 이렇다 할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하고 아쉽게 패배를 기록했다. 3연승 뒤 첫 패를 안은 광주는 긴박한 ‘생존싸움’까지 펼쳐야 하는 위기의 상황을 맞았다.

앞서 광주는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상대로 한 ACLE 1차전에서 7-3 대승을 거두며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어 가와사키 프론타레(일본)를 1-0으로 꺾은 광주는 말레이시아의 ‘강호’ 조호르 다룰 탁집도 3-1로 제압하면서 12개 팀으로 꾸려진 동아시아그룹 최고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지난 2일 대전하나시티즌과의 K리그 1 36라운드 경기 이후 곧장 일본 원정길에 올라 3일 만에 다시 경기에 나선 광주는 ‘강행군’ 여파로 매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33살에 처음 국가대표로 발탁된 ‘수문장’ 김경민이 호수비수를 펼쳤지만 전반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다.

전반 추가 시간 페널티지역에서 수비를 하던 박태준의 핸드볼 파울이 나오면서 고세의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그리고 키커로 나선 미야시로 다이세이가 광주 골대 왼쪽을 뚫으면서 ‘0의 균형’이 깨졌다.

후반 시작과 함께 고베가 공세를 펼치면서 추가 골 사냥에 나섰고 후반 9분 다시 광주의 실점이 기록됐다.

연달아 날아온 상대의 슈팅을 저지한 김경민, 하지만 세컨볼이 사사키 다이주 앞으로 향했다. 사사키가 뛰어올라 헤더를 시도했고 이내 광주의 골망이 흔들렸다. 전반부터 열심히 광주 골대를 두드렸던 사사키는 머리로 득점에 성공했다.

빠듯한 일정에 무더진 광주의 발끝은 단 하나의 슈팅을 날리는 데 그치면서 결국 0-2패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아직 갈 길이 먼 광주는 아슬아슬한 도전을 이어 가게 됐다.

당장 광주는 10일 제주로 건너가서 오후 4시 30분 제주유나이티드를 상대로 K리그 1 37라운드 경기를 치러야 한다.

현재 승점 45로 8위에 자리한 광주는 ‘다이렉트 강등’ 위기는 면했다. 하지만 앞선 대전과의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강등권’에서는 벗어 나지 못했다. 10위, 11위는 승강플레이오프를 치러 승리를 거둬야 강등을 피할 수 있다.

광주는 두 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11위 전북현대(승점 38)는 승점 7점 차로 따돌렸다. 하지만 10위 대구FC(승점 40)와는 승점 5점 차다.

이번 제주전에서 ‘최소 9위’를 확정하지 못하면 광주는 24일 펼쳐지는 전북과의 시즌 최종전에서 피말리는 승부를 펼쳐야 한다. 전북과의 총력전 뒤 3일 만에 상하이 선화(중국)와의 ACLE 경기도 진행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승강플레이오프까지 치러야 하는 상황도 맞출 수 있는 만큼 광주는 제주 원정에서 절박한 승부를 펼치게 됐다.

구단 사상 처음 ACLE에 나선 역사적 시즌이지만 광주는 재정건전화 문제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선수 영입 없이 ‘에이스’ 엄지성만 내보냈다.

광주는 전력 수급 없이 뜨거운 여름 강행군을 펼치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 ‘체력 문제’에 직면했다. 또 시즌이 마무리돼 가면서 내년 시즌을 위한 준비도 동시에 진행해야 하지만 불확실한 ‘예산’ 문제로 현장은 애만 태우고 있다.

광주 축구 역사를 새로 써 내려가고 있는 광주는 올 시즌 경기 당 평균 4752명을 동원하는 등 흥행 열기도 이어가고 있다. 이 분위기를 살려 광주 축구



광주FC의 아사니(왼쪽)가 지난 5일 일본 고베의 미사키공원 경기장에서 열린 고베 비셀과의 2024-2025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리그 스테이지 4차전 원정 경기에서 드리블을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광주는 전력 수급 없이 뜨거운 여름 강행군을 펼치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 ‘체력 문제’에 직면했다. 또 시즌이 마무리돼 가면서 내년 시즌을 위한 준비도 동시에 진행해야 하지만 불확실한 ‘예산’ 문제로

현장은 애만 태우고 있다. 광주 축구 역사를 새로 써 내려가고 있는 광주는 올 시즌 경기 당 평균 4752명을 동원하는 등 흥행 열기도 이어가고 있다. 이 분위기를 살려 광주 축구

의 경쟁력을 마련해야 한다. 5일 만에 다시 그라운드에 올라야 하는 광주가 어떤 묘수로 분위기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0대’ 김민수, 챔피언스리그 첫 출전

에인트호번전 후반 교체 투입
스페인 지로나FC 0-4로 대패

스페인 프로축구 지로나FC에서 뛰는 2006년생 유망주 김민수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데뷔에 성공했다.

지로나는 6일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의 필립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UCL 리그 페이즈 4차전 원정 경기에서 PSV 에인트호번(네덜란드)에 0-4로 졌다.

지로나는 대패했지만 이날 경기에서 한국 축구에 의미 있는 장면이 나왔다. 김민수가 후반 33분 교체 투입돼 그라운드를 밟은 것이다.

설기현 전 경남FC 감독, 박지성 전 전북 현대 테크니컬 디렉터 등을 시작으로 여러 한국 선수가 세계 최고 무대인 UCL 본선 무대를 밟았으나 김민수처럼 10대의 나이로 기회를 받은 건 정우영(우니온 베를린), 이강인(파리 생제르맹)뿐이다.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이 부문 최연소는 이강인이다.

발렌시아(스페인) 소속으로 활약하던 2019년 첼시(잉글랜드)와 원정 경기 후반 투입돼 18세 6개월의 나이로 UCL에 출전했다.

김민수는 이보다는 살짝 늦은 18세 10개월의 나이로 UCL 무대를 경험했다.

김민수는 K리그 대표 유망주로, 토트넘(잉글랜드) 입단이 예정된 양민혁(강원)과 동갑이다.

손흥민과 함께 토트넘에서 뛰었던 미드필더 브리안 힐과 교체된 김민수는 전방을 누웠으나 후반 10분 아르나우 마르티네스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해 수적 열세에 시달리던 전황을 뒤집지는 못했다.

2022년 지로나 유스팀에 합류해 2군 격인 B팀에



지로나FC 김민수(뒷쪽)가 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의 필립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5 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페이즈 4차전 에인트호번과의 경기에서 공을 다루고 있다. /연합뉴스

서 댄 김민수는 잠재력을 인정받아 지난 8월 연장 계약을 체결, 2027년까지 구단과 동행하기로 했다. 2023-2024시즌까지는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는 비유럽연합 선수를 최대 3명까지 1군 엔트리에 등록할 수 있다.

지난 시즌에는 에이스로 활약한 공격수 아르템 도우비크(우크라이나) 등이 버티면서 기회를 잡지 못했다.

올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도우비크가 AS 로마

(이탈리아)로 이적한 데다 빅토르 치한코우(우크라이나)까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김민수에게 기회가 왔다.

지난달 20일 레알 소시에다드전 처음으로 벤치명단에 이름을 올린 김민수는 후반 27분 교체 투입돼 스페인 무대 데뷔전을 치렀다.

지난달 말 CD 엑스트레마두라와 코파 델 레이(국왕컵) 1라운드에서는 처음으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하며 4-0 대승에 이바지했다.

U-19 축구대표팀, 스페인 4개국과 친선경기

2025 아시아축구연맹(AFC) 20세 이하(U-20) 아시안컵 본선 진출을 확정된 19세 이하 대표팀이 스페인에서 열리는 국제친선대회에 참가해 경험을 쌓는다.

6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U-19 대표팀은 이번달 스페인 마르베야에서 개최되는 4개국 국제친선대회에 출전한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덴마크가 참가한다.

우리나라는 한국시간으로 15일 프랑스, 17일 미국, 18일 덴마크와 차례로 대결한다.

U-19 대표팀은 내년 2월 중국에서 열리는 AFC U-20 아시안컵을 준비 중이다.

한국은 9월에 열린 예선에서 4전 전승을 거두고 아시안컵 본선 진출권을 땀다.

16개 팀이 참가하는 AFC U-20 아시안컵에서

1~4위 팀은 2025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본선 출전권을 손에 넣는다.

이번 스페인 대회에 나갈 대표팀은 24명의 선수로 구성됐다.

아시안컵 예선에 참가했던 선수 대부분이 그대로 합류한다.

해외파로는 꾸준히 이창원 감독의 부름을 받았던 김태원과 이재찬(이상 포티모넨스-포르투갈)이 있다. 양시우(뒤셀도르프-독일), 이상민(헤타페-스페인), 황석기(오세르-프랑스)는 이창원호에 처음 승선한다.

302억...FA ‘최정상’

SSG 최정 ‘4년 110억원’ 등 3번의 FA로 302억 벌어

최정(37·SSG-사진)이 세 번의 자유계약선수(FA) 계약에서 총액 302억원(14년)을 찍었다. 국의 리그에 진출하지 않고 한국프로야구 KBO리그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기준’을 높여냈다.

SSG는 6일 “최정과 4년 110억원에 FA 계약을 했다. 모두 보장 금액”이라고 밝혔다.

최정은 2014년 11월에 당시 FA 최고인 4년 86억원에 SK(SSG 전신)과 잔류 계약을 했다. 2018년 12월에는 SK와 6년 최대 106억원에 또한 FA 계약을 했다.

두 번째 FA 계약을 한 시점에 최정은 KBO FA 총액 1위로 올라섰다.

최정은 2024년에도 KBO리그 최정상급 타자로 군림했고 이날 세 번째 FA 계약을 했다.

이번 계약은 한국프로야구 KBO리그 역사를 바꿨다.

국외 진출을 한 선수가 ‘국외파 프리미엄’을 누리며 대형 계약을 하고 KBO리그로 돌아오는 경우는 꽤 자주 있었지만, 최정은 KBO리그에서만 뛰면서도 세 차례나 초대형 계약을 했다.

통산 다년 계약 총액에서 최정은 압도적인 1위로 올라섰다.

두산 포수 양의지는 2018년 12월 11일 NC와 4년 125억원에 FA 계약했다.

4년 뒤인 2022년 11월 22일 두산으로 돌아오며 6년 152억원의 새로운 FA 계약을 한 양의지는 두 번의 FA 계약을 통해 최대 277억원을 벌게 됐다.

최정의 세 차례 계약 총액은 302억원으로, 양의지의 FA 계약 총액(277억원)을 25억원이나 넘어서는 신기록이다.

통산 다년 계약 수입 3위는 2018년 4년 115억원, 2022년 6년 115억원을 합쳐 230억원에 LG와 계약을 김현수다.

김광현은 FA 계약과 비FA 다년 계약으로 221억원을 받는다.

김광현은 2017년 4년 85억원에 당시 SK와 FA 계약을 했다. 연봉이 15억원으로 책정된 2020년(계약 마지막 해)에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70억원이다.

김광현은 미국 생활을 마치고 2022년 비FA로 151억원에 계약했다. 두 번의 다년 계약 총액은



역대 4위다.

5위 삼성 포수 강민호는 세 번 FA 계약을 하며 191억원을 벌 기회를 얻었다.

2004년 롯데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강민호는 2014년 첫 번째 FA 자격을 얻어 롯데와 4년 75억원에 계약했다.

2018년 두 번째 FA 권리를 행사할 때는 4년 80억원에 삼성으로 이적했다. 2022년에도 강민호는 4년 36억원 규모의 계약을 했다.

2017년 롯데와 계약하며 ‘FA 150억원 시대’를 연 이대호는 2021년 2년 26억원에 롯데 잔류를 택했고, 2022시즌 종료 뒤 은퇴했다.

일본과 미국에서도 뛰 이대호는 KBO리그에서 다년 계약으로 번 돈 176억원으로 이 부문 6위에 올랐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류현진은 올해 한화로 돌아오며 8년 170억원에 사인했다.

류현진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6년 동안 3600만달러를 받은 뒤, 2019년 켈리파잉 오피를 받아들여 1790만달러에 계약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4년 8000만달러에 FA 계약까지 해 류현진의 미국 시절 연봉 총액은 한화로 1800억원 수준이었다.

류현진의 계약만 봐도 메이저리그와 KBO리그의 시장 규모 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만 뛰어도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연합뉴스